

WE ARE THE FUTURE

경기 모듈부품3사 공동소식지 위아더 퓨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 여는 3+@

1,200 방향 맞춰

경기지부 모듈부품4사 전조합원이 같은 방향을 향했다. 5.29(금), 6.2(화) 0시 30분 현대모비스화성지회 전조합원 교육을 시작으로 6.9(화) 현대모비스평택 주야간, 6.11(목), 17(수) 현대위아안산, 6.12(금), 15(월) 현대모비스안양 전조합원 교육을 같은 내용을 진행, 1,200 조합원의 마음을 모을 첫발을 뒀다.

화성-평택-안산 3사가 함께 미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모비스안양은 설립 첫해 조합사무실과 조합활동 등 첫 단체협약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첫 노사관계에 임하는 사측 태도에 따라 3사와 공동행보를 유연하게 판단해갈 계획이다.



▲ 사진 위에서부터 모비스화성, 위아안산 조합원 교육

흠칫? 예상대로!

교육 제목이 “미래를 위한 파업을 준비하자”였다. 교육장에 들어서서는 조합원 다수가 ‘파업’을 보고 흠칫 놀라기도 했다. 4사 조합원 모두 집중도가 여느 때와 달랐다. 포비스야간조 교육에는 위아평택 지지방문을 왔던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간부들이 참가해 교육을 함께 들었다. 교육 내용은 3몰-3방-3도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느낌 이랬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일없이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제목에 ‘파업’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보니 수긍이 되더라”

_모비스화성 김상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다. 올해 쉽진 않을 거라는 것 조합원도 다 이해한다. 모비스-위아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_모비스화성 박광조

3몰라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 모듈부품사의 미래는 ①코로나19, ②미래차 전환, ③완성사 노사관계라는 3가지 불확실성 사이에 놓여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도 미래차로의 전환은 우리의 일과 삶에 중요한 변수다.



▲ 포비스 조합원들이 질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쟁의권을 유지하며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가장 많이 손을 들었다.

← 상황 알았다

“현 시국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었다. 불확실한 상황에도 ‘이건 꼭 이뤄내자’는 명확한 방향을 잡고 함께 가야한다”

_포비스 조정호

“기존에 갖고 있던 불안감이나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모비스-위아, 금속노조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_포비스 박태영

“올 해는 다른 때보다 더 긴장하고, 변화상황을 예의주시해 신중한 판단을 할 때다.”

_포비스 전미경

“보편적으로 어려운 시기 노사가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_ 위아안산 김태수

3방향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3가지 방향으로 길을 연다. 완성차를 정점으로 한 수직구조에서 이동수단을 둘러싼 다자관계로 가는 자동차 산업 변화 속에 ①완성사 노사 프레임 넘어 독자적 길을 찾자 ②독자적 길의 한 방법으로 금속노조의 원칙적 교섭형태인 중앙교섭.집단교섭 참가, 특히 모비스-위아 함께하는 교섭구조 창출하자. ③지금까지의 각자교섭 각자도생 무책임한 노사관계를 넘어설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위한 파업’을 한다.



◀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간부들이 포비스교육에 참관했다.

← 방향 잡았다

“어려운 시기여도 할 건 해야 한다. 할 때 안 하면 매년 어렵다는 사측 말만 듣는다. 슬기롭게 헤쳐갔으면 한다”

_위아안산 김희복

“여전히 사업장별 각자 교섭을 하며 지연만 되고 눈치만 보는 비효율적인 교섭형태 바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_포비스 윤여필

“이 힘든 시기를 부품3사가 더욱 단결하여 함께 헤쳐나갈 뚜렷한 방향을 잡아준 점이 뜻 깊었다.”

_위아안산 정준

“모비스위아 함께 간다는 게 좋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좋다.”

_위아안산 장상웅

“코로나 19로 인해 교섭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측의 어렵다는 핑계, 현기차 눈치 보지 말고 우리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_모비스화성 김경호

“작년에도 모비스 위아 각각 따로 교섭이 정리됐는데, 올해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는 투쟁이 되면 좋겠고 연대의 의미를 조합원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그걸 바탕으로 지부 집단교섭 참가 쟁취했으면 한다.”

_모비스화성 김경지

3도전

미래를 여는 첫 도전이 될 2020년, 성과를 내려는 의욕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①**진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로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사관계의 모습에 관해 그룹에 담대한 ②**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따라 우리 길을 판단할 것이다. 실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마음을 모으는 올해, 1,200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언제 시작했든 간에 올해 다시 ③**초심**으로 도전한다.

우리가 미래다 We Are The Future

조합원 교육으로 1,200 조합원과 2020년 투쟁방향 공유를 마쳤다. 5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각사가 교섭을 진행 중이고, 7월 중 3사 교섭위원 모임, 3사 공동 상집수련회를 열어 자동차산업과 노사관계 관련 동향을 교육, 토론하며 공동투쟁의 주요한 판단을 함께 해나간다. 일상에서는 교섭과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며, 교섭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담아 월 1회 공동소식지를 발행해 조합원과 마음을 나눈다.

2020년 세계적 재난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우리는 ‘미래를 여는 도전’을 시작한다. 눈치보기, 각자도생을 끝내고 자동차산업 변화를 대비하는 노사관계의 독자적 길에 대하여 담대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먼저 3사+@ 함께 가는 길을 걷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의 진심을 확인한다면 우리 내부와 전국의 동료들과 사용자 또한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미래다. We Are The Future.



▲ 막내도 초심+초심. 모비스안양 조합원들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 각오 이렇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 중요하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도 과정 중에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장 별 조합원 정서도 다르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시작했으면 같이 끝냈으면 좋겠다. 임단투 끝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

_모비스화성 오성민

“매년 그렇지만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소식지에 나오는 교섭과 투쟁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의 질문이 많아지고 현장에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

_모비스화성 이현승

“조합원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조합이 안정되면서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의 마음을 많이 잊는 것 같다. 자신만의 편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다른 조합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_모비스화성 김상준

“코로나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보고 지레 겁먹거나 걱정하지 말고 원래 하던대로 자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당당하게 나아가자”

_포비스 박태영

“지난 시간 모비스 위아 동종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산됐었는데 20년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 중에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겨나가려면 똘똘 뭉쳐야 한다. 각지의 동료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 힘을 키우자.”

_포비스 이정원

“금속노조는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하다. 코로나19 재난을 이전처럼 보낸다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금속노조 직접해보니 진정 노동자를 위한 집단임을 알았는데, 주변에서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는 게 안타깝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실리 중심 과한 요구로 무리하지 말고 장기적인 우리의 앞날을 구축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할 때다”

_포비스 김민수

김천에 다 모여 희망의 빛 한 줄기

지난 20일(토) 경북 김천의 한 호프집에 전국의 모비스위아부품사가 모였다. “현대모비스 김천지회 부당해고 법률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모듈부품사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3시, 이미 구미지부 조합원들이 먼저 자리를 가득 채워 뜨거운 연대 지지의 열기가 가득했다. 모듈부품사는 경기에서 화성, 평택, 안양모비스 간부와 조합원들이 달려갔고, 울산, 광주에서도 모였다. 경기 조합원 여럿은 “주점이란 걸 처음 와봐서, 회사 앞에서 집회하고 간단하게 먹는 건 줄 알고 집회용품 다 챙겨왔다”며 웃었다.

현대모비스 김천지회는 두 번의 설립 시도 끝에 지난 19년 12월 8일 노동조합을 설립, 지금까지 20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교섭내내 “우리는 임금과 복지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으니 다른 지회와 같이 하자.”는 말만 반복해 6.18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중국공장으로서의 설비 이전 계획을 저지하는 투쟁 과정에서 사측은 2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 33명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5명이 해고된 상태로 투쟁 중이다. 현장순회, 약식집회, 출근과 중식선전전 등을 하며 첫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복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천모비스 한갑호 지회장은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자리”라며 “과거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푸른 깃발이 대한민국 전국에 찬란하게 날릴 때까지 노동조합 힘차게 달려갑시다. 노동조합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며 응원과 지지에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국 지회장들은 “김천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거니까 힘내라”며 응원하고 투쟁기금 봉투를 줄줄이 전달했다. 자리가 부족해 김천 조합원들에게 양보하고 올라오는 길, 또렷한 실버라이닝(구름의 흰 가장자리, 어둠 속 밝은 희망이라는 뜻)이 우리를 반겼다. 김천지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한줄기희망을 만들어가길, 우리 모두가 초유의 재난 속에도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을 여는 2020년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선명한 빛이었다.



▲ 위에서부터 ①전국지회장들의 응원인사(오른쪽부터 화성 안재연, 위아창원 강동인, 포비스 양태인, 모비스울산 함형길, 울산모비스 박유중, 모비스충주 김민우, 모비스안양 김대근, 위아광주 문동진 지회장), ②릴레이 투쟁기금 전달, ③ 김천 한갑호지회장 ④ 실버라이닝